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 경 배 의원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민선 8기 임기 내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중구 원도심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방안이 필요합니다.”

“안영IC 인근 만남의 광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민 경 배 의원

●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벨기에 브뤼셀 현지에서 대전시민들에게 낭보를 전해주신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이장우 시장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조 7천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1만 500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저를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도 대회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대전시민의 삶을 위해 이장우 시장께서 민선 8기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그 추진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보문산 관광개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혔듯이 저는 민선 8기의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장우 시장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역대 대전시장들은 보문산 개발사업을 시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앞세워 시민들의 기대를 키워왔습니다.

민선 4기 ‘보문산 뉴 그린파크 프로젝트’, 민선 5기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민선 6기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민선 7기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연계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저런 이유로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과연 이 사업이 민선 8기에는 추진이 되는지, 추진이 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에는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보문산을 대전관광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 맞습니까?

저는 이장우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하여 민선 8기 시장 임기 내에 본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은 역대 시장들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고 이장우 시장께서도 추진의지를 보이신 것을 보면 보문산 관광개발은 대전관광은 물론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따라서 이장우 시장께서는 시장 임기 내에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문산을 대전관광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재미나 놀이시설의 나열이 아니라 각각의 관광거점 인프라의 연결성을 높여 관광벨트화하고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접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광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숙박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사동에서 오월드 사이를 곤돌라로 연결하고 사정공원 인근에 워터파크와 리조트를 건설해 보문산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대전관광의 허브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계획만 세우다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가 경제성과 사업성의 부족,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에 있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는 보문산 관광거점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보문산 관광개발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밝히신 만큼 임기 내에 실현하실 구체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시의 원도심지역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주민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대전의 도시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도시가 형성되고 성장함에 따라 도시의 많은 기능은 시대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에 의해 발전되는가 하면 해체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도심은 도시발전의 근원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적 요인과 공간적 가치가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거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장소를 보면 새롭게 조성된 곳보다는 오랜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원도심 또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오래된 점포들입니다.

저는 대전시의 5개 자치구 중에 대전의 원도심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은 중구와 동구가 바로 이런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21년에 대전의 주요 관광지 27곳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720만 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관광지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방문객 46.7%가 중구를 찾았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대전 원도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도시발전의 근원적 역할을 해온 대전 중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시장께서 대전의 원도심에 대한 애정과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전시 원도심의 가치와 위상에 걸맞으며 원도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전시의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대전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들이 지역적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자치구별 공공공연장이 63개소가 있는데 서구와 유성구가 가장 많고 중구와 대덕구가 가장 적습니다.

또한 중구의 공공체육시설이 조성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총 9곳이지만 중구의 지리적 특성상 특정동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특징을 고려한다면 실제 중구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 중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산성동은 중구에서도 가장 큰 면적의 행정동으로 중구 시민의 12%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성동의 연령대별 인구현황을 보시면 50대 이상 인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고령자들이 생활권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대전고 생활SOC와 한밭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하더라도 대부분의 시설들이 산성동과는 2km 이상 떨어져 있고 중구 산성생활체육관이 1km 내에 입지해 있지만 호남선에 가로막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역의 쇠퇴를 고민하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시활력 증진지역을 지정하였고, 지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중 산성동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사업체 수가 변화함은 물론 건축물 노후도가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산성동이 중구에서도 가장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실제 산성동의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산성 전통시장 인근에 방치된 땅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지요.

(10시 59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0분 영상자료 종료)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방치된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원도심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현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강국 정책의 시범사업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생활체육 허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이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현황파악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의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야말로 일류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획 중인 민선 8기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원도심의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땅에 대한 관리계획과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예산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영IC 인근 만남의 광장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전지역 고속도로에는 대전·유성·서대전·신탄진·북대전·판암·안영·남대전IC 등 총 8곳의 IC가 있습니다.

이 중 대전에 만남의 광장은 유성IC와 북대전IC 2곳에 불과합니다.

과거 2016년 대전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2곳을 제외한 6곳의 IC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골격을 잡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 지난 제8대 의회에서 대전IC를 비롯해 서대전IC 인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행량 증가와 인근 지역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 안영IC 인근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영IC는 2000년 12월 대전남부순환도로의 서대전부터 판암을 잇는 구간 개통과 함께 설치된 중구 유일의 IC로 대전남부권의 중요관문 역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소별 이용차량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하루 7,576대의 차량이 안영IC를 이용했으며 2017년에는 8,779대, 2021년에는 9,663대가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2012년 대비 27.5%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안영IC 인근에 위치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는 2020년 2만 4천여 명, 2021년 7만 2천여 명, 올해 9월 말 기준 6만 2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올해 4월 개최된 대전시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에는 1,642명이, 7월 유소년 전국축구대회는 6,195명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이용객이 찾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이지만 그에 비해 주차면은 647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오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2017년과 2018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오월드를 찾았으며, 특히 입장객 중 외지인이 60%에 이릅니다.

그러나 오월드의 주차면은 1,784면으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인근 주민들은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와 오월드가 인접한 안영IC 인근에 만남의 광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안영IC 인근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안영생활체육단지에 대회가 있을 때와 오월드가 봄비는 주말 등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2곳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영IC 인근 만남의 광장 조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추진의지를 밝혀주시시오.

만약 부정적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다른 대안 및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누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서서는 민선 8기 시장 임기 내 보문산 개발사업 실현방안, 원도심 편의시설 확충방안 그리고 안영IC 인근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평소 대전시 관광정책과 원도심 균형발전, 주차난 문제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문산 관광개발 임기 내 실현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은 사실상 대전의 심장과 같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문산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보문산 관광개발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문산 관광개발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20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숙원을 해결하고자 민선 8기 공약으로 보문산 일대를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문산 체류형 관광개발 추진사업을 검토한 결과 대략 3천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타워 문제, 곤돌라 및 케이블카 문제, 워터파크, 숙박시설 그리고 보문산 호동 일원의 수목원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끊임없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수집 등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보문산 관광개발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행동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는 저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다만 약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48개월, 정부고시사업으로 했을 때는 한 6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 내 실현을 위해서는 조성에서부터 운영, 관리까지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가능하면 민간사업으로 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긴밀하게 사업추진과 관련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관광개발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과 다양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임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문산 관광개발은 우리 시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또 많은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간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에 따른 민자유치 실패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무엇보다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들이 주요 난관이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민자유치 제안서 작성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참여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는 민자유치를 위해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타워와 곤돌라를 각각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사업별로 환경훼손 최소화와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규모, 추진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저한 환경조사와 환경성검토를 통해서 산림이 양호한 녹지공간은 제외하고 훼손된 녹지공간 복원도 병행하면서 외국의 선진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도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명 관광지의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운영상황 등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여 민간자본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문산 관광개발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본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여건 위축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 없는 추진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이 더

이상 좌절되지 않도록 모든 시정에 힘을 모아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원도심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확충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동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특히 스포츠센터, 이런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부족은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개 구가 균형적인 문화체육시설을 함께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께서 골고루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도시의 가장 좋은 미래지향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별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신청 등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 등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에서 공모를 신청할 경우 우리 시는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에 선정되면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분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비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그 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아울러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활체육 인프라 종합 확충계획에 반영하여 자치구별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시민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동구는 3곳이 있습니다.

중구는 8곳이 있고 서구는 10곳이 있고 유성구는 6곳, 대덕구는 8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육관 현황을 분석해서 각 지역별로 꼭 필요한 곳에 추가로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해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해주신 안영IC 인근 만남의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에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많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남의 광장이 2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성IC 광장과 북대전IC 광장 2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판암IC, 남대전IC, 안영IC 주변에 주차장을 포함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고 시도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에 나서겠습니다.

저도 가끔 안영IC 다리 밑에 차를 주차하고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안영IC 주변에 좋은 주차장을 포함한 만남의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고 판암IC, 남대전IC도 역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매입과 조성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안영IC 주변과 관련된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대전시에 있는 IC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단·중·장기의 계획을 짜서라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안영IC 주변을 포함한 IC 주변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이것을 하려면 아마 자치구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각 자치구와 협의하고 또 서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배 의원(1차 보충질문)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전 원도심에 살고 있는 고령의 시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심을 헤아리는 대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행정은 아직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성동 주민 인터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대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정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 주인인 시민이 평생을 살아온 생활터전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고 있고 그 불편함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전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께서는 대전시 행정수장으로서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산성전통시장 인접에 방치된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자치구가 청결유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질문 요지서를 받아본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현장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민편의시설 조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인이, 역대 대전시장이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주민에게 기대감만 심어주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넘칠까 걱정해야 하고 여름에는 모기와 해충을 걱정해야 하고 가을·겨울에는 화재위험을 걱정해야 합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만이 해야 하는 걱정일 뿐일까요?

대전시 행정은 물론 체 방관만 하실 건가요?

시장님!

민원인으로서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그로 인하여 내가 사는 동네가 좋아지는 것을 볼 때 시장님도, 저와 같은 의원도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

산성동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산성동 시장과 주변의 고질적인 민원문제는 사실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저희도 직접 점검하고 중구청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산성동 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또 산성동 발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우선 안전해야 되고 또 수해나 폭우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자치구와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보여주신 산성동의 여러 가지 쓰레기를 포함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중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인지는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동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산성동 주민들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인석 의원님께서서는 가칭 천동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인근 개발 현황으로 천동3구역과 대성지구 총 4,397세대의 대단위 개발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학교군 내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천동중학교 학교예정부지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학교 설립은 개발지역 해당 학교군 내 학교의 전환 가능 교실 확보와 증축 등으로도 분산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천동중학교 예정부지 학교 신설은 현 시점에서는 학교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하여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2024년 천동3구역, 대성지구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학교 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군 내 학교 재배치와 학군 재검토를 통해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설립 TF도 구성하여 다양한 학교모형을 개발하는 등 내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인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